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6. 21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파리올림픽 개막식, 센강 대신 에펠탑 앞 행진도 검토

- 6.13 언론은 2024 파리올림픽의 센강 수상 개막식이 취소될 경우에 대비해 에펠탑과 트로카데로 광장을 잇는 '이에나 다리'에서 선수단이 행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

※ 「마크롱」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개막식과 관련 실질적 테러 위협이 포착되면 센강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개막식이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

○ 러시아, ISIS 조직원 수감자가 교도관 2명 납치

- 6.16 언론은 러시아 로스토프의 구치소에서 ISIS 조직원 2명 포함 수감자 6명이 감옥 창살을 부수고 사무실에 들어가 교도관 2명을 인질로 납치한 후 차량과 석방을 요구했으나, 특수부대가 납치범을 사살하였다고 보도

※ 러 교도당국은 “인질로 잡혔던 교도관 2명은 다치지 않고 석방됐다”고 성명 발표

미주

○ 美, 스웨덴 백인우월주의 단체 '테러리스트' 지정

- 6.15 언론은 미국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스웨덴 백인우월주의 단체 「노르딕저항운동*」을 러시아 「제국주의운동」에 이어 특별 국제테러 단체로 지정했으며, 미국 내 금융시스템 사용이 차단된다고 보도

* 스웨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네오나치 단체(97년 설립)로 북유럽 민족국가를 추구하고, 노르웨이·덴마크·핀란드 등에 지부를 두고 소수 민족 등을 겨냥한 테러 시도

○ 美 정보기관, 본토 테러 가능성에 대한 경고

- 6.18 「그레이엄 앨리슨」 하버드대 교수와 「마이클 모렐」 前 CIA 부국장은 최근 외교 정책 전문지 '포린어페어스' 기고문에서 미국에서 몇 달 안에 심각한 테러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

* 同人들은 美 정보기관과 軍 고위 인사들의 경고가 잇따르는 점을 지적, 이들의 경고가 기밀정보를 근거로 발언하는 것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

중 동

○ 후티叛軍, 홍해 上 상선 공격에 자폭무인정 동원

- 6.17 언론은 예멘의 親이란 후티叛軍이 홍해에서의 상선 공격에 자폭무인정(수상드론)까지 동원하면서 同 지역에서 후티에 대응해온 미군의 방어력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
- ※ 6.12 홍해 상선에 처음으로 수상드론을 사용했으며, 이는 후티의 선박 공격을 저지하려는 미국 주도 다국적군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분석

아 · 태평양

○ 대만軍, AI 탑재 무인기 약 1,000대 구매 예정

- 6.17 대만軍은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*을 탑재한 드론(7종 968대)을 구매할 예정이며, '27년까지 군용 규격의 상용 드론(3,231대)도 구매 계획이라고 보도
- * 同 기술은 원터치 이륙, 자율 귀환, 목표물 능동 추적, 계획된 경로 비행 기능, 좌표 거리 계산 능력 등을 갖춰 비행 위험 저하 및 작전 효율성 증대

아프리카

○ 아프리카연합, 소말리아 파견軍 3차 철수 발표

- 6.17 언론은 아프리카연합이 소말리아 파견軍 4,000명을 6월말까지 추가 철수시킬 예정이며, '23년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그동안 1차·2차에 걸쳐서 5,000명의 파견軍을 철수시켜 소말리아 보안군에게 인계했다고 보도
- ※ AU의 평화유지 임무는 '07년 시작되어 소말리아의 안정과 재건 및 무장단체에 대항하기 위해 회원국들로부터 병력 및 UN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운영

○ 나이지리아, 보코하람 억류 인질 34명 구출

- 6.18 언론은 나이지리아 軍이 이달 들어 보르노州 차드 호수 인근의 보코하람 주둔지에 세 차례 공습을 가해 테러리스트 1명을 사살, 3명은 체포하고 차량 등 장비를 파괴했으며, 억류되어있던 어린이·여성 인질 34명을 구출했다고 보도

아프가니스탄 카불, 라마단 기간 자살폭탄테러

- '16.6.20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대사관 보안요원은 외부용역계약을 통해 계약한 네팔인 캐나다 대사관 보안요원들이 탑승한 버스를 겨냥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, 14명이 사망 · 9명이 부상
 - * 폭탄 조끼를 착용한 테러범이 승용차를 몰고 해당 버스로 돌진
 - 사건 직후,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카불 정부에 불만을 지속 표출하던 탈레반이 “同 테러 배후를 자처했다”는 성명을 발표
 - * '21.8월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, 과도정부를 출범하였으나, 현재까지 국제사회는 탈레반 정권을 정상국가로 未인정
 - 이에,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 「압둘라」는 同 테러사건 규탄 성명과 함께 “군경을 투입해 추가 테러를 경계할 것”이라고 발표
 - 반면, 추가 테러 경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同 사건 10일 후 동일지역에서 주민 시위대를 대상으로 연쇄 자폭테러가 일어나 80명 사망 · 231명이 부상당하는 등 카불 정세 불안은 지속
- ⇒ 탈레반 정권 집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카불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바, 우리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사사례 지속 분석 필요

< 탈레 반(Taliban)* >

- (목 표) 아프니스탄內 외세축출 및 이슬람 神政국가 수립('94.8 결성)
- (조직규모) 약 55,000~85,000명('20.5, UN), 100,000명('19.8, 美 민주주의 수호재단)
- (주요인물) 지도자 「물라 아쿤자다」, 제1부사령관 「시라주딘 하카니」
- (연계세력) 알카에다, 파키스탄 탈레반(TTP), 하카니 네트워크 등
- (활동지역)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접경지역
- (활동수법) 주요도시에서 정부청사 · 국제기구 등 대상 폭탄테러, 지방에서 연합군 및 아프간 군경 대상 도로매설 폭탄테러·매복공격
- (주요활동) ① '07.7 가즈니州에서 샘물교회 봉사단 2명 살해, 21명 42일간 억류
 ② '11.2 와르닥州에서 미군 헬기를 격추, 특수부대원 등 30명 사망 초래